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키움증권

미 증시, 매크로 부담 완화, 반도체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강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5일(화) 미국 증시는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부진(89.4 vs 컨센 90.4) 및 재무부의 추가 개입 기대감,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발표 이후 군사충돌 가능성 후퇴 및 휴전 기대감 등에 따른 금리 및 유가 하락 속 마이크로(+2.4%), 엔비디아(+2.2%) 등 반도체주의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상승(다우 +0.3%, S&P500 +0.3%, 나스닥 +0.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4%).

이처럼 시장 금리의 상방 압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안도 요인. 더욱이, 최근 일련의 금리 급등 사태에도 주요국 증시의 조정 강도가 크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아, 주식 선호도에 별다른 훼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 국채 및 회사채 발행 증가 등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증시 조정을 유발하는 시장금리의 임계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

일례로, 8월 19일 블룸버그의 기관투자자 설문을 보면, 응답자의 66%가 연내 미 10년물 금리 5.0% 돌파를 전망했으며, 한 달 뒤에도 시장금리 상승 전망(응답 77%)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 여기서 위험조정 수익률 기준으로 응답자의 74%가 국채보다 주식 투자를 선호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금리 하락을 전제로 주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금리를 기본 시나리오로 받아들이면서도 주식의 상대 매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는 고금리가 신규 돌발 악재로 작용하기 보다는, 대응 가능한 범주의 시나리오에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금리 상승 속도이기에, 그 속도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1차 단기 이벤트는 26일 예정된 미국의 7월 PCE 물가가 될 예정(2차는 28일 금요일 밤 잭슨홀 미팅).

따라서, 지난 7월 CPI에 이어 7월 PCE(YoY, 헤드라인 컨센 +3.6% vs 6월 +3.7%, MoM 헤드라인 컨센 +0.1% vs 6월 -0.1%)에서도 인플레이션 안도감이 확보될 시, 장기 금리의 재급등 가능성을 제한할 전망. 이 경우, 매크로발 불확실성에 대한 추가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AI, 반도체 중심의 성장주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약세, 엔비디아 실적 경계심리 등으로 장 초반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락을 맞으면서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낙폭과대 인식 및 저가 매수세 유입, 여타 업종으로의 순환매 발생 효과 등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하며 반등에 성공(코스피 +0.7%, 코스닥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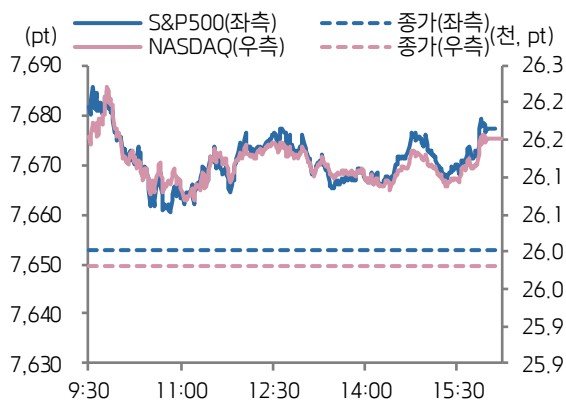
금일에는 미국 10년물 금리(4.7%대 → 4.6%대)와 30년물 금리(5.3%대 → 5.1%대)의 레벨 다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대 강세 등 대외 환경 호전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전망.

여전히 국내 증시 반등의 연속성에 의구심이 드는 구간이지만, 증시 내부의 회복 탄력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전일 코스피가 장 초반 4% 넘게 밀렸음에도 이후 낙폭을 전부 만회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 나, 외국인이 3.8조원대 순매도를 단행했음에도, 개인과 기관 수급이 이를 받아냈다는 점이 그 근거.

증시 조정을 유발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뿐 아니라 소부장주의 반등 탄력도 강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이는 최근 금리 부담, 주주환원 셀은 물량, 반도체 포지션 축소 등 증시 전반에 걸친 매도 에너지가 약해질 가능성을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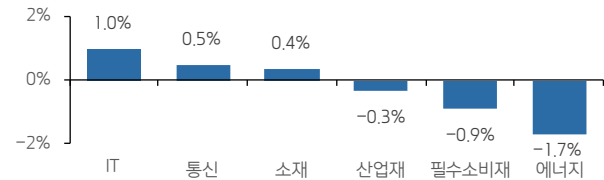
어제 코스피가 장중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 추후 선형적인 회복 추세로 진입할 것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이른 감이 있음. 하지만 주도력 약화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반도체 비중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주가 반등 시 매도 후 현금 비중을 확대해가는 전략은 후순위로 가져갈 필요. 기존 주도주는 시가총액 비중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추가 조정 시 반도체 이외에도 유통, 증권, 전력기기, 바이오 등 여타 주요 업종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대안이라고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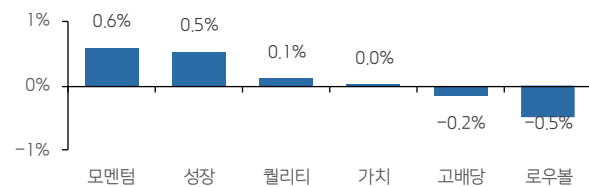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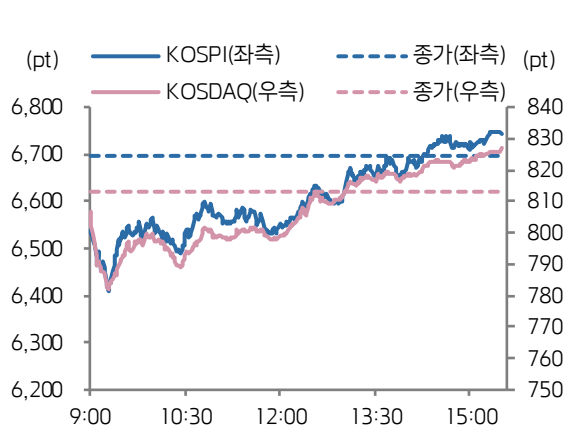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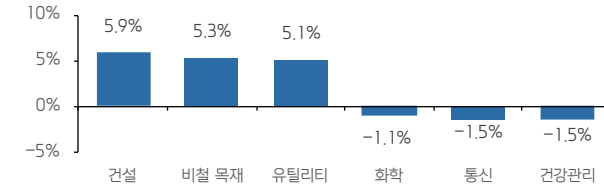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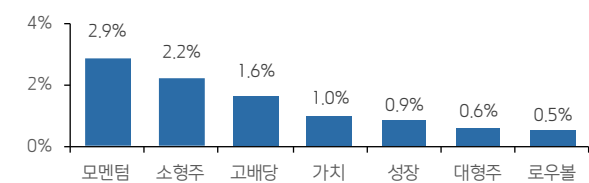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09.90	-0.14%	+14.3%	GM	85.81	-1.35%	+6%
마이크로소프트	491.71	+0.9%	+2.32%	일라이릴리	1,233.66	-1.06%	+15.35%
알파벳	346.96	-0.32%	+10.99%	월마트	105.38	-1.04%	-4.81%
메타	570.05	+1.97%	-13.49%	JP모건	356.69	+0.08%	+12.27%
아마존	261.06	-0.39%	+13.1%	엑손모빌	160.64	-2.08%	+36.17%
테슬라	350.25	+0.37%	-22.12%	세브론	199.89	-1.58%	+34.82%
엔비디아	213.05	+2.19%	+14.38%	제너럴일렉트릭	105.38	-1%	-4.8%
브로드컴	356.74	-0.56%	+3.45%	캐터필러	811.29	+0.03%	+42.48%
AMD	479.18	+4.91%	+123.75%	보잉	211.08	+0.29%	-2.78%
마이크론	932.97	+2.48%	+227.08%	넥스트에라	84.22	+0.1%	+6.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742.74	+0.68%	+60%	USD/KRW	1,384.05	+0.03%	-3.85%
코스피200	1,060.68	+0.63%	+75.04%	달러 지수	98.91	-0.09%	+0.6%
코스닥	827.15	+1.7%	-10.62%	EUR/USD	1.17	+0.09%	-0.6%
코스닥150	1,439.11	+1.51%	-6.99%	USD/CNH	6.72	-0.07%	-3.7%
S&P500	7,677.28	+0.32%	+12.15%	USD/JPY	159.19	+0.05%	+1.58%
NASDAQ	26,151.30	+0.66%	+12.52%	채권시장			
다우	53,577.40	+0.3%	+11.47%	채권	가격	DTD(bp)	YTD(bp)
VIX	15.45	-2.52%	+3.34%	국고채 3년	3.826	-0.9bp	+87.5bp
러셀2000	3,010.02	+0.5%	+21.28%	국고채 10년	4.318	-0.9bp	+93.3bp
필라. 반도체	11,588.04	+1.44%	+63.6%	미국 국채 2년	4.174	-5.8bp	+70.1bp
다우 운송	21,455.62	+0.11%	+23.61%	미국 국채 10년	4.629	-6.7bp	+46.2bp
상해종합	3,889.45	+0.19%	-2%	미국 국채 30년	5.165	-5.9bp	+32.1bp
항생 H	8,445.37	-0.31%	-5.25%	독일 국채 10년	3.201	-5.2bp	+34.6bp
인도 SENSEX	77,656.09	+0.37%	-8.88%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원자재	가격	DTD(%)	YTD(%)
Eurostoxx50	6,455.63	+0.12%	+11.47%	WTI	82.36	-3.12%	+44.62%
MSCI 전세계 지수	1,149.61	+0.38%	+13.3%	브렌트유	88.58	-3.89%	+45.57%
MSCI DM 지수	4,975.74	+0.36%	+12.31%	금	4,694.50	-0.07%	+4.38%
MSCI EM 지수	1,704.09	+0.56%	+21.34%	은	68.68	+0.13%	-2.72%
MSCI 한국 ETF	180.15	+3.75%	+85.3%	구리	671.40	+1.65%	+18.16%
디지털화폐				BDI	2,882.00	+1.44%	+53.54%
비트코인	78,199.38	-0.93%	-10.78%	옥수수	523.50	+1.55%	+13.68%
이더리움	2,436.52	-1.55%	-18.17%	밀	703.25	+0.54%	+24.52%
				대두	1,237.75	+1.1%	+16.28%
				커피	335.50	-1.8%	+6.6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25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